

2020 주일메세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면?

1.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다.

(1) 쉼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듣는태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쉼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선포 앞에 있었다. '쉼마 이스라엘'이라는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쉼마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듣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들으신다.

[시편 10:17]

주님,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23-24]

23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24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한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믿음의 확신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수준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성도에 삶은 달라진다. 진짜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다.

(3) '말'

하나님과의 관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재가 된다.

민수기 14장은 이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된다. 부정적인 가나안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결과,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민수기 14:2]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을 한다. 선을 넘는 말들이다. 이들이 맺은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라.

[민수기 14:27-28]

27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28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27절).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하시겠다 말씀하신다(28절).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고, 들으신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 깊이 안에서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말한대로 하신다는 사실이다.

2. 말의 위력

(1) 말씀에 기록된 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잠언 4:24]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잠언 12:13-14, 18-19]

13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뺨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14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18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낮게 하는 약이다.

19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잠언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에베소서 4:29]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2) 말의 능력

말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의 길', 즉 '개념'을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생각이 개념화 된 것이 '인식'이다. 사람은 자신이 인식한 만큼 알 수 있고 행동한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한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조’라는 말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창조’라는 말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로 인식할 수 있다. 말은 개념을 만든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영, 혼, 육이 적혀있기 때문에 영, 혼, 육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적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말은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을 수 있는 ‘말’을 선점해서 개념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진리’에 대해 다른 말을 통해, 다른 거짓 개념을 만들어서 이 시대 안에 넣고, 영향을 받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말’을 선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먼저 선포하는 것이다. (케뤼그마)

(3) 믿음의 말

말의 능력을 살펴 보았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믿음’이라는 중요한 그릇에 담아 하늘의 능력을 보이신다.

믿음의 말을 하라. 소망의 말을 하라. 그 말대로 될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짓, 정죄함, 속임의 음성들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생명의 말, 소망의 말, 능력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선포해야 한다.

(4) 듣고 말하고 -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 하나님과 허물없는 깊은 친밀감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시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반응하여 이야기 해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